2007년 국가물류시행계획 - 올해 2.4조원 투자키로

- 글로벌 물류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정부는작년8월‘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2006 20)’을 수립하면서 2020년 글로벌 물류 강국의 실현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글로벌 물류 강국이란 개념은 그동안 동북아 국가 간에 대두되었던 물류 분야의경쟁보다는상호간협력을통해상생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가최근미국과FTA 협상을타결하였듯이, 세계각국은다른국가, 다른지역과의공조체제를확대하고있다. 즉, 세계무대에서자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타국과의협력관계가필수적임을인식하고있다. 물류도동북아국가간에경쟁을통해물류허브가되는것이아니라글로벌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고하겠다.

2006년 시행 계획 추진 실적

국가물류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위한매년도추진계획을말한다.

2006년도국가물류시행계획을추진한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인천공항 물류 단지(1단계, 30만평)를 지난해 3월 개장하여 입주율 63.5%(2006년 12월 말 기준)[1]를 달성하였으며, 1월에는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3선석이 조기 개장하였다. 또한, 부산진역의 하역 체계를현대화 · 자동화하여하역시간을단축하고, 열차의연간수송능력도43% 증가[2]하였다. 우수 물류 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작년 1월 도입하고 21개 업체를 발굴하는 등 물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물류기업이필요로하는글로벌물류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9월에물류전문대학원을개원하는등전문물류인력양성을위한지원도대폭강화하였다.

이러한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국가 물류비의 GDP 대비 비중은 2005년과 비교해 0.6% 포인트 하락한 11.9%를, 국가 물류비 중 부가가치 비중은 전년과 비교하여 2.2% 포인트 증가한 63.8%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물류의 효율성이향상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물류 경쟁력 강화 위해 2.4조원 투자

‘ 2007년도국가물류시행계획 은 2006년에수립된기본계획이수정된이후, 수정된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 따라서, 이번시행계획은글로벌물류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를목표로삼았으며, 특히글로벌물류협력의강화를강조하였다.

2007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은 물류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 물류체계를효율화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 정보화 · 표준화 · 산업지원등을담고있는물류분야의종합계획이다. 시행계획에서는인천공항2단계사업, 부산항 · 광양항개발, 전국5대권역복합물류기지 건설 등 글로벌 물류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기위해약2조 4,000억원(국고, 지방비, 민자포함)[3]을집중투자할계획이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시행계획의주요내용은첫째, 글로벌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 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항만 분야에있어서도중국, 일본의항만과국내항만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항만 네트워크도 강화할계획이다. 또한, 한 · 중 · 일간새로운복합운송체계의구축을논의하는등물류협력도지속확대하며, 기업의국제복합운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 · 중 간에 트럭을 연계한 새로운 복합 운송 시스템인 RFS(Road Feeder Service)[4]를 7월에 청도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하여 우선 도입한다.

둘째,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선호하도록물류 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이다. 인천공항2단계공사[5]는 6,570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공정률 88.2%를 달성하고, 부산 · 광양항과 배후 물류단지 개발에도 1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 9월에는 광양항 공동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인천공항 물류단지 30만평의 추가 개발도 하반기부터착수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Hub & Spoke 물류 네트워크구축을위해 2010년까지전국5대

1) 입주업체 66개: 외국업체 10개, 국내업체 56개.
2) 하역 시간 : 1개 열차 2.9 → 1.3시간, 열차 연간 수송능력: 68만TEU 97만 TEU.

3) 글로벌 물류 체계 구축 1조 8,995억원, 하드웨어 물류 인프라 확충 4,269억원, 소프트웨어 물류 시스템 강화 866억원, 고부가가치물류산업육성 299억원.
4) RFS : 중국공항과 인천공항을 트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상구간은페리를이용.
5) 2단계 사업(2002 08) : 부지 250만평, 활주로 1본(4,000×60m), 계류장 36.5만평, 탑승동1동(5만평).

권역별로 총 141만평의 복합물류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중부권(충북 청원 · 충남연기, 5월착공)과 영남권(경북칠곡, 3월 착공) 공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금년도 복합 물류기지 건설에 전년과 비교하여 140억원이 증가한 92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유통단지는 2008년까지 전국 13개소, 총 127만평 개발을 목표로 금년에는 5개소(45만평 : 평택 15만평, 여주 8만평, 전주 6만평, 음성 9만평, 안동 7만평)를 준공하고, 5개소 조성공사(서울 16만평, 천안 14만평, 강릉 5만평, 경기 광주 8만평, 제천 5만평)를 추진한다. 대규모 화물 취급역에는 컨테이너 야드(CY)를 확장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 철도배후물류기지도 개발[6]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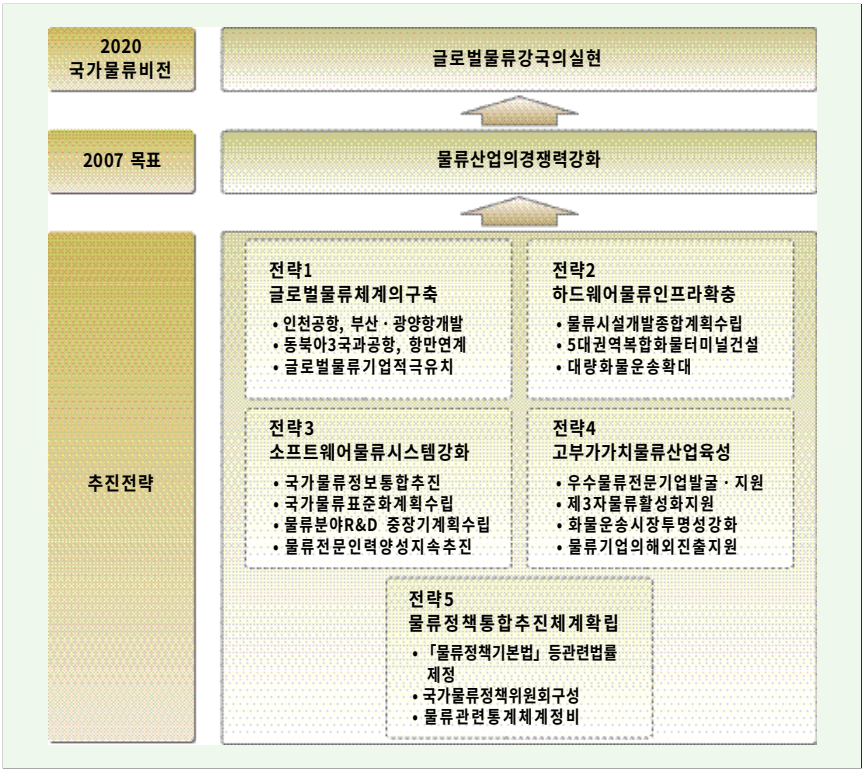
셋째, 지능형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인프라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관별로 분산된 물류 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물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구축은 올해 15억원을 투자하는 등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화물의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항공물류정보시스템(KACIS) 서비스를 개시한다. 수출입 기업에게는 화물예약, 선적자동화서비스, 체계적인 추적정보 제공 등 민간기업의 유통 · 물류정보화를 지원한다.

또한, 미래형 첨단물류기술을 개발 · 보급하기 위해 물류 분야 R&D 중장기 계획(2008 12)을 수립하여 첨단 물류 기술 시스템을 선정하고, 물류기술 분야별 추진로드맵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RFID를 활용해 컨테이너 · 물품의 위치 추적 등 물류 · 유통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전문 대학원(인하대)과 장 · 단기 해운 항만 물류 전문 인력 과정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물류 전문 인력을 지속 양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 부산진 CY에 CFS 창고 건립(2007. 7, 1,000평), 오봉역철강기지확장(2007. 7, 2,000평), 약목역CY 확장(2007. 12, 4,000평).

2007년 국가물류시행계획 목표 및 전략



넷째, 글로벌물류강국을 실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우수물류전문기업을 발굴하고, 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물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토대로 우수물류기업을 추가발굴하여 인증할 계획이며,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제를 도입하고, 우수화물 운수업체에 대한 인증제 시행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물류관련통계체계의 정비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가는 기반 마련

정부는 앞으로 물류 정책의 중심을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 기업의 육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건설한 물류인프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이를 활용하는 주체인 물류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그 규모나 효율성 측면에서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물류 기업의 유치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CJ

박종흠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장